

『釜鎮諸詠』연구*

한태 문**

|| 차례 ||

- I. 머리말
- II. 『釜鎮諸詠』의 구성
- III. 『釜鎮諸詠』에 반영된 인물과 장소
- IV.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부산을 배경으로 창작된 시문집인 『釜鎮諸詠』을 살핀 것이다. 첫째, 『부진제영』은 크게 「釜鎮題詠」, 「多大鎮題詠」, 「侍御樓題詠」 등으로 나뉘어지고, 그 형식도 記文, 碑銘, 上樑文, 祝文, 題詠 등 다양하되 산문은 ‘記’가, 시는 칠언율시가 많았다. 편집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부산 지역 출신보다 다른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며, 혈연관계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앞뒤로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부진제영』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크게 權盼과 永嘉臺, 鄭撥과 鄭公壇, 釜山鎮城과 左水營, 尹興信과 尹公壇 등으로 나타났다. 권반은 영가대를 세운 공적으로 찬탄의 대상이 되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영가대는 외교공간이자 명승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정발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충절의 표상으로 묘사되었고, 이들의 비석 건립 경위와 정공단의 배치가 주로 다루어졌다. 부산 진성과 관련된 작품은 주로 성곽·문·누각·비석 등을, 좌수영은 객사와 누각을 중견한 시말을 다루었다. 그리고 윤홍신과 윤공단은 매몰된 윤홍신의 사적을 세상에 드러내어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선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제어 : 부진제영, 영가대, 정발, 좌수영, 윤흥신

I. 머리말

부산은 예로부터 바다·산·강·온천이 어우러진 四抱之鄕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결과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그 속에 깃든 삶을 배경으로 수많은 문학작품이 산출되었다. 최치원의 자취가 머문 해운대를 제재로 한 시문에서부터 목민관인 동래부사 정현덕의 <봉래별곡>, 그리고 지역민에 의해 연행되고 향유된 <동래야류>·<수영야류> 등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한편 부산은 국토의 최동남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에다倭館이 설치되어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관문이자 외교의 중심지로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1397년에 釜山鎭이 일본에 대한 방어시설로 만들어지면서 부산은 성곽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키는 등 일본에 대한 국방상 중요거점이 되었다. 부산진은 主鎭인 경상좌수영의 휘하에 있었지만 동래부의 목구멍에 자리한 요충지로¹⁾ 多大浦·西生浦·丑山浦·包伊浦·開雲浦·西平浦·豆毛浦·甘浦·漆浦 등의 諸鎭을 관할하는 巨鎭이었다.²⁾ 『釜鎭諸詠』은 바로 이 조선후기의 부산진을 제재로 지어진 각종 시문을 모아 편집한 시문집이다.

1) 李相璜, <釜山城樓記>(『釜鎭諸詠』), 茲釜山 據萊府之咽喉 接倭服之去來 則譬諸鎭第一要衝.

2)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p.11.

지금까지 부산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부산의 명소를 답사형식으로 살피는 것으로부터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배경을 살피거나 통신사 사행록을 통해 부산의 모습을 살핀 연구들이 있었다.³⁾ 하지만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는 시문을 통해 부산을 살핀 이들과 달리, 정작 부산을 읊은 시문이 한 권에 집약된 『부진제영』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진제영』을 구성 및 주로 반영된 인물과 장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釜鎭諸詠』의 구성

『부진제영』은 1책 36장으로 板式은 匡郭이 四周單邊, 半廓 23.0×17.5cm에 10행 20자 注雙行이며, 版心은 上二葉花紋魚尾로 31.5×21.7cm이다. 유일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소장(古3649-68)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전문이 탑재되어 있다. 서문이나 발문은 물론 목차도 없이 바로 순찰사 李敏求의 <永嘉臺記>에서 시작하여 절제사 張寅植의 <特御樓題詠>까지 총 67명의 글을 담고 있다. 정확한 간행연대나 편찬자는 알 수 없지만, <鎭南門重修記>(1843), <鄭公壇紅箭門創建記>⁵⁾ ·

3) 엄경흠, 『한시와 함께 하는 시간여행』, 전망, 1997.;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석당논총』 5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한태문, 『통신사 문학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1집,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4) 다만 연구는 아니지만 釜山鎭이 소속된 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부진제영』을 번역하여 펴내기는 했다. 김성진, 『國譯 釜鎭諸詠』, 부산광역시 동구청, 2005.

5) 『부진제영』에는 <鄭公壇紅箭門創建記>의 작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서두에 적힌 “癸卯之孟秋 余來莅此鎭”을 통해 작자는 癸卯年(1843)에 부임한 장인식임을 알 수 있다.

<奉命萊州再行蠻館宴歷登永嘉臺>·<李司猛移築碑祝>(1844), <東門樓上樑文>·<侍御樓題詠>(1845) 등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장인식을 편찬자로 추정하기도 한다.⁶⁾ 그는 1802년 張儒汲의 아들로 태어나 1835년 증광시 병과에 22위로 급제하였으며, 釜山浦鎭 水軍僉節制使(1843)·경상좌도 수군절도사(1852)·경사좌도 병마절도사(1860)를 지내 부산과 인연이 남다른 인물이다. 현재 부산시 동구 鄭公壇에는 1857년 7월 開雲鎭 군졸들이 변방을 구휼한 그의 공을 기려 세운 <水相國張公寅植永世不忘碑>⁷⁾가 세워져 있다.

『부진제영』은 크게 「釜鎭題詠」, 「多大鎭題詠」, 「侍御樓題詠」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편집순서에 따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

분류	제목	작가		형식	창작시기
		이름	신분		
釜	永嘉臺記	李敏求	巡察使	記	1624
		權孚	東萊府使		1728
		朴載河	慶尙左水使		1761
		黃幹	春秋館記事官		不明
	釜山城樓記	李相璜	僉使		1706
		趙慶祥	節制使		1761
	釜山子城碑銘	權以鎭	東萊府使	碑銘	1710
	皇朝經理大中丞萬公碑閣重修記	朴綺壽	東萊府使	記	1818

6)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에도 '張寅植 等著'로 기록되어 있고, 「해제」를 쓴 허경진도 그의 시가 맨 마지막에 수록된 것을 통해 편찬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7) 碑身에는 '恤邊調防 茹強扶弱 恩重如山 惠壽于石'이, 碑陰에는 '丁巳七月日 開雲鎭卒立 監役朴重亨 色金井洵'이 새겨져 있다.

8) 시의 경우 그 형식이 '七言律詩 1首'일 경우 '七律(1)'로 표기한다.

鎮	永嘉臺八景	李 璣	客	七絕(8)	1618
		李 瀾	慶尙觀察使	七律(1)	1770
		張錫胤	接慰官	七律(1)	1835
		李 馥	東萊府使	七律(2)	1676
		尹弼秉	東萊府使	七律(1)	1792
		李 默	李珥 8代孫	七律(1)	不明
題	醉登永嘉臺呼歌聯句	金斗明	接慰官	七律 聯句(1)	1680
		趙世煥			
		尹 攀			
		鄭希天	過客	七律(1)	1762
		姜必履	東萊府使	七律(1)	1766
		金錫一	東萊府使	七律(1)	1741
		李忠左	不明	七律(1)	不明
		李鼎運	不明	七律(1)	1793
		李明迪	東萊府使	七律(1)	1839
		洪重孝	東萊府使	七律(1)	1746
		洪義祖	東萊府使	七律(1)	1829
		金魯鎮	不明	七律(2)	1762
		李勉餘	不明	五絕(1)	1676
		李海文	僉使	七律(1)	1765
		金漢喆	東萊府使	七律(1)	1744
		申 濡	通信使從事官	七律(1)	1643
		朴師海	不明	七律(1)	不明
		朴孝成	不明	七律(1)	不明
		鄭 皙	東萊府使	七律(1)	1669
		金履萬	不明	七律(1)	不明
		尹順之	通信使正使	七律(1)	1643
		鄭昌胄	不明	七律(1)	1649
		李星慶	接慰官	七律(2)	1752

詠	奉命萊州再行蠻館宴歷登永嘉臺	柳鼎養	不明	七律(1)	1813
		權 煥	不明	七律(1)	1800
		吳翰源	東萊府使	七律(1)	1806
		朴齊明	東萊府使	七律(1)	1831
		李百愚	不明	七律(1)	不明
		曹漢振	不明	七律(1)	不明
		李淳夏	不明	七律(1)	1810
		金益柱	不明	七律(1)	不明
		許 珩	不明	七律(1)	不明
		洪鍾應	東萊府使	七律(1)	不明
		姜時永	東萊府使	七律(1)	
		張寅植	節制使	七律(1)	1844
		李圭夏	僉使	七律(1)	不明
		方允熙	不明	七律(1)	不明
		金元柱	湖南客	七絕(1)	不明
		黃鎰漢	不明	七律(1)	不明
		李璟淵	不明	七律(1)	1844
		權魯郁	不明	七律(1)	不明
	西城金壘關重修記	安光贊	節制使	記	1818
	樓臺城堞廊宇重修記				
	釜山客舍重修記	具 絺			1808
	鎮南門重修記	張寅植			1843
	永嘉臺懷古詩	方允熙	不明	五古(1)	不明
	左水營賓館重修記	李圭徹	節度使	記	1842
		姜膺煥			1793
	同舟下大洋登覽海雲臺歸後以兩絕寄題沈節度營軒	金魯鎮	不明	七絕(2)	1762
		斗峰	不明	七絕(1)	1789
	次寧波堂壁上三絕韻	李膺緒	不明	七絕(3)	1844
	明侯堂記	安光贊	節制使	記	1829
	題明侯堂	安光贊	節度使	五律(1)	1829
	謹步明侯亭韻	洪義祖	東萊府使	五律(1)	1829
	和呈水閣明侯亭韻	李發源	梁山郡守	五律(2)	1830
	東門樓重建上樑文	張寅植	節制使	上樑文	1845

	鄭公壇紅箭門創建記	張寅植	節制使	記	1844
	李司猛移築碑祝	張寅植	節制使	祝文	1844
	烈女碑祝				
	忠奴碑祝				
	戰亡諸人碑祝				
多大鎭題詠	尹公壇碑文	趙鎭寬	慶尙道觀察使	碑文	1797
		洪鍾應	東萊府使		1841
	詠尹將軍	李海文	多大僉使	七律(1)	1765
		閔宗赫	全羅右水使	七律(1)	1820
		姜必履	東萊府使	七律(1)	1765
		具錫朋	慶尙左水使	七律(1)	1830
		尹秀烈	不明	七律(1)	不明
侍御樓題詠	侍御樓題詠	吳翰源	東萊府使	七律(1)	1807
		金學基	幕賓	七律(1)	1807
		張寅植	節制使	七律(1)	1845

도표에서 드러나는 『부진제영』의 특징은 먼저 담고 있는 시문의 형식이 記文・碑銘・上樑文・祝文・題詠 등으로 다양하되, 산문은 ‘記’가, 시는 칠언율시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목을 붙여 시를 읊는 ‘題詠’의 의미를 고려하면 『부진제영』은 제목과 담긴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 외의 글들이 짧게나마 시를 포함하고 있고, 시가 지닌 함의를 부연・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로 제시되어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누각・성곽・비각・성문・객사에 대한 감회를 표현한 시를 수록함과 동시에 이들의 始末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는 역사성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는 편집의 비체계성을 들 수 있다. 작품이 창작시기별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영가대 관련 작품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영가대의 빼어난 풍광을 노래한 <永嘉臺八景>은 정확히 李璵

의 시만 이 詩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차운도 아니고 그냥 영가대를 읊은 시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醉登永嘉臺呼歌聯句>에서도 다를 바가 없어 聯句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것은 金斗明·趙世煥·尹攀 등 3인이 합작한 원래의 작품 밖에 없다. 20명의 작가들 가운데 金錫一·金魯鎭·朴師海·金履萬 등만이 이들의 聯句에 개인적으로 차운한 것이고, 오히려 통신사 申濡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더 많다. 게다가 출처조차 ‘창작시기·관직·작가명’을 모두 표기한 것에서 ‘관직·작가명’, ‘본관·작가명’, ‘호·작가명’ 및 ‘작가명’만 기록한 것에 이르기까지 표기방식이 다양해 일관성이 없다. 또 <永嘉臺記> 속의 朴載河, <釜山城樓記> 속의 趙慶祥의 글은 각각 <忠壯公鄭撥戰亡碑>와 <忠壯公碑閣創建記>로 따로 처리해도 될 정도이다. 이와 같은 엉성한 편집체제는 중앙이 아닌 釜山, 문관이 아닌 武官에 의해 편집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편찬자를 절도사 張寅植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부산지역 출신의 작가보다 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는 부산지역을 배경으로 한 고전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으로⁹⁾, 그 가운데 지방관으로 부임한 동래부사의 작품이 가장 많다. 그 내용은 주로 성이나 누각, 또는 객사를 세우거나 重修한 사실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¹⁰⁾, 후세에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경상도관찰사·경상좌수사·첨절제사·다대첨사·양산군수를 비롯하여 도일준비를 하던 통신사와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파견된 接慰官 등 직무의 특성상 부산 및 부산 인근지역에

9) 정경주, 앞의 논문, p.2.

10) 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의 보수와 修築사업은 지역정책의 현안이자 동래부사의 중요한 책무였다.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10, pp.181-186.

머물렀던 인물들의 작품도 많다. 물론 ‘過客’·‘多浦歸客’·‘湖南客’ 등으로 표현된 관광을 목적으로 들른 여행객의 작품도 있다.

넷째, 혈연관계를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 權孚는 <永嘉臺記>에서 영가대를 만든 權盼이 자신의 고조부임을 밝히고 있고, <醉登永嘉臺呼歌聯句>에는 金斗明의 原詩에 대해 아들 金錫一이 차운시를 남기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신유의 시에 차운하고 있어 <醉登永嘉臺呼歌聯句>에 포함시키기 어렵긴 하지만 李鼎運-李明迪는 부자간, 洪重孝-洪義祖는 증조손 관계이다. 이 역시 문인들의 시문집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의 작품을 선후로 배치하여 그 혈연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釜嶺諸詠』에 반영된 인물과 장소

『부진제영』에는 부산지역이 대상인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과 장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權盼과 永嘉臺, 鄭撥과 鄭公壇, 釜山鎮城과 左水營, 尹興信과 尹公壇 등이다.

1. 權盼과 永嘉臺

『부진제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2명의 작가가 <永嘉臺記>·<永嘉臺八景>·<醉登永嘉臺呼歌聯句>·<奉命萊州再行蠻館宴歷登永嘉臺>·<永嘉臺懷古詩>¹¹⁾ 등을 남기고 있는 永嘉臺이다.

11) 본문에서 작품을 인용할 때는 가독성을 고려해 <永嘉臺八景>·<醉登永嘉臺呼歌

옛날에 나의 고조부 吉川君께서 절도사로서 큰 배를 가라앉혀 언덕을 쌓고
 曲港을 파서 戰船을 숨기었다. 이에 언덕 위에 8칸의 작은 누각을 지었는데,
 그 처해 있는 모습이 가운데가 활꼴 같아 마치 엮드린 거북 같고 사방을 한
 가지로 볼 수 있어 절로 호리병 속의 별천지를 이루었다.¹²⁾

- 權孚, <永嘉臺記>

영가대가 광해군 6년(1614)에 절도사 權盼에 의해 조성되었고, 그 경관
 또한 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권반(1564-1631)은 권근의 후손으로 자가
 仲明, 호가 閉戶이며, 호조좌랑·예조정랑·홍문관수찬·강화부사 등을
 역임한 뒤 1613년에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많은 반대
 를 무릅쓰고 奎三達·嚴愷 등의 보좌를 받아 왜구의 침범에 대비하고 大
 風에도 繫留가 가능한 선착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다.¹³⁾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고 쌓아놓은 토사가 언덕을 이루자 망루를 겸할 겸 언덕
 위에 8칸 누각도 만들었다. 그 결과 30여 척의 군함을 계류할 수 있는 선착
 장은 물론, 부수적으로 敵情 탐색의 망루 역할이 가능한 영가대가 조성될
 수 있었다.

壑以藏舟截浦涯 골짜기에 배 감추려 포구의 절벽을 잘라내고
 臺成候汎騁眸睵 누각 지어지니 망보아 살핌에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聯句>·<奉命萊州再行蠻館宴歷登永嘉臺>·<永嘉臺懷古詩>를 각각 <八景>·
 <聯句>·<奉命>·<懷古詩>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2) 昔我高皇考吉川君 持道節 沉大艦 築墩鑿曲港 藏戰船 因作小樓八間於墩上 處勢
 當中穹然 若伏龜四望同 自成壺裡別界.

13) 한태문, 『조선 후기 대일 사행문학의 실증적 연구-부산 영가대 해신제와 제문을 중심
 으로』, 『동양한문학연구』 11집, 동양한학회, 1997, p.558. 전삼달과 엄황은 1624년에
 각각 첨절제사와 좌도수군절도사가 되어 권반이 1615년 巡檢使로 옮길 때 그를 모셨
 던 절제사 李敏求를 도와 다시 붕괴된 제방을 보수했다.

欄邊止水排青雀 난간 옆 고요한 물엔 배들이 늘어서고
 港外崩潮卷白沙 항구 밖 일렁이는 파도는 흰모래를 말아가네
 經紀吉川規劃遠 권공의 다스림 그 계획은 원대하고
 文章觀海錫名嘉 바다처럼 큰 문장은 영가대란 이름을 하사했는데
 登臨想像甘棠愛 올라와 내려보니 甘棠을 사랑하던 마음 알 수 있고
 舊種喬林半作槎 옛날에 심은 교목 숲은 거의 뗏목을 만들 만하네
 - 洪重孝, <醉登永嘉臺呼歌聯句>

홍중효가 1643년 통신사 申濡가 남긴 시에 차운한 것으로, 영가대를 조성한 권반에 대한 찬탄이 중심내용이다. 곧 『시경』의 <甘棠>을 끌어 와周나라 백성들이 선정을 베풀던 召穆公 虎가 쉬던 감당(팔배나무)을 사랑하듯¹⁴⁾, 영가대에 오르고 보니 “만세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념으로 선착장과 영가대를 조성한 권반에 대한 부산지역민의 사랑이 새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편, 영가대는 통신사를 비롯한 일본 사행에서 海神祭堂이자 往還지점의 역할을 했듯이¹⁵⁾ 『부진제영』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묘사된다.

먼저 임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이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忠魂을 되새기는 장소로 그려진다. “성난 파도는 아직도 임진년의 한을 머금은 듯하고(怒濤猶帶龍蛇恨)”(鄭希天, <聯句>), “천추에 씻기 어려운 건 임진년의 한(千秋難洩龍蛇恨)”(金益柱, <奉命>), “칼을 권 마음 갑자기 임진년 일이 떠올라 / 말 술로도 만 섬의 근심을 씻어내지 못하네(劒心陡

14) 『詩經』, 國風, 召南, <甘棠>, 蔽芾甘棠 勿剪勿敗 召伯所憩.

15) 원래 중구 성남초등학교 뒤에 있었던 영가대는 2003년 9월 부산 동구청에서 부산진지성 남쪽 화단에 복원하였다. 오늘날에는 매년 5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조선통신사축제의 해신제 재현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起龍蛇歲 斗酒未澆萬斛愁”(李圭夏, <奉命>) 등 결코 치욕을 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다. 게다가 영가대 곁에 세워진 정발 장군의 비석을 접하고는 “해처럼 밝은 정발공의 순절비가 / 지금도 눈물 흘리며 산모퉁이에 서 있네(白日鄭公殉死碣 如今墮淚在山隈)”(姜時永, <奉命>), “정공의 남은 한 쓸쓸히 물과 함께 흐르고 / 이따금 이는 큰 물결 문득 벼락을 일으킨다(鄭公遺恨空流水 往往鯨波忽起雷)”(黃鎰漢, <奉命>)라고 하여 그의 충혼을 기린다.

둘째는 戰艦繫留用 선착장 조성의 부산물답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다. “망을 보는 누대는 경보를 멀리까지 전하고 / 푸르고 깊은 바다의 배들은 미리 염려하여 대비하네(斥埃樓臺傳警遠 滄深舟楫備虞先)”(李瀾, <八景>), “포구를 파서 못에 전함을 감추고 / 높게 대를 쌓아 모래바람을 살피네(鑿浦沼沚藏舸艦 築臺齊迥覘風沙)”(申濡, <八景>) 등에선 敵情 탐색의 기능을, “성도 외곽도 담도 없는데 / 도리어 자물쇠 채운 듯 폭도들 막는 문이 되었네(無城無郭又無垣 鎖鑰還成禦暴門)”(李馥, <八景>), “군영을 둘러싼 채 적의 목구멍을 누르고 있네(繚繞戎垣鎖賊喉)”(李淳夏, <奉命>) 등에서는 金城湯池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양국의 사신이 오가는 외교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홀을 권 대마도주의 오랑개 복장 선명도 하다(蠻酋摜玉弁衣明)”(李默, <八景>), “맑은 가을 북과 피리 소리 오랑개 전별연에 울려 퍼지고(淸秋鼓角讌蠻回)”(金漢喆, <聯句>) 등에서는 사신으로 온 대마도주와 그를 보내며 마련한 전별연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어찌하면 곧장 신선의 배 타고가 / 부상을 날날이 보고 뜻대로 다한 뒤 돌아올 수 있으려나(何由直泛仙槎去 窮得扶桑盡意回)”(姜必履, <聯句>), “태평성대라 수레와 글이 이역에도 통하리니 / 하늘가에서 글 짓고 술 마시면 좋은 벗 있게 되리라(聖代車書通絕譯 天涯文酒有良朋)”(張錫胤, <八景>) 등에선 일본으로 향하는

통신사와 그들이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가 그려진다.

마지막으로 神仙境을 지닌 명승지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이미 李璿가 <永嘉臺八景>에서 영가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影島歸帆・倉浦落雁・蠻寺曉鐘・龜峰夕燧・降仙流雲・勝鶴暗嵐・水晶返照・荒嶺霽月 등으로 읊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광해군 때 訓將을 지낸 李璿는 1607년 통신사가 귀로에 울산에 들렀을 때 兵使의 신분으로 사행을 방문하기도 했다.¹⁶⁾ 이밖에 “공중의 화려한 누각은 이무기가 뿜어낸 기운 / 수면에 비친 청산은 자라가 이고 온 것(空中畫閣蜃嘘起 水面青山鰲戴來)”(朴孝成, <聯句>)이라 하여 영가대가 인간의 작품이 아님을 강조하고, “採藥船이 돌아갈 땐 자유롭지 못하리니 / 이 누각은 신선들 기다리기 정말 좋은 곳(採藥船回不自由 此樓端合待仙儔)”(金魯鎮, <聯句>)이라 하여 신선맞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나아가 “신선을 맞이하는 늙은 관리 채찍을 던지고 멈추네(迎仙老吏去鞭停)”(吳翰源, <奉命>)에선 자신을 아예 신선을 맞는 관리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2. 鄭撥과 鄭公壇

『부진제영』에서 영가대 곁에 그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던 까닭에 영가대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발(1553~1592)이다. 그는 1592년 釜山鎭僉節制使에 임명된 후 왜적의 도발에 대비하던 중 임진왜란을 맞게 된다. 4월 13일 절영도에 사냥을 나갔던 정발은 海宗島에 나타난 배를 처음엔 대마도의 歲遣船으로 알았다가 兵船임을 알고 급히 성으로 돌아와 대비한 뒤 이튿날 들이닥친 적과 맞서 싸웠다.¹⁷⁾

16) 慶暹, 『海槎錄』, 丁未年 7月 7日, 夕到蔚山府 兵使李璿來見 暫酌而罷.

17) 趙慶男, 『亂中雜錄』1, 『壬辰年上』, 4月 13日, 時僉使鄭撥 出獵于絶影島 初謂朝貢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 정발공은 사기를 북돋우며 성을 돌아다니면서 활을 쏘아 죽인 적이 헤아릴 수 없었다. <…> 얼마 후 공이 탄환을 맞아 죽자 성이 마침내 무너졌다. 공의 막료인 부사맹 李庭憲공도 곁을 떠나지 않고 역시 죽었고, 공의 첩 愛香도 공의 죽음을 듣고 달려와 울면서 시체 옆에서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공의 노비 龍月 또한 적에게 달려들다 죽었다. 그 후에 倭將이 “귀국의 장수 중에 부산의 黑衣장군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였다. 이는 공이 싸울 때에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 朴載河, <永嘉臺記>¹⁸⁾

이는 약 170년이 지난 1761년,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한 박재하가 정발의 충절을 기리고, “장차 변방을 지키는 마음을 분격시켜 적의 노림을 깨뜨리려는” 의도에서 영가대 곁에 세운 비석에 담긴 글이다.¹⁹⁾ 정발이 부산진성의 300여 民戶에다 고작 1000명 정도에 불과한 병력으로 18,700명의 정예 병력인 왜적과 맞서기엔 애초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정발이 워낙 중형무진으로 군사들을 독려했기에 왜적은 “검은 옷을 입은 장군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倭將조차 그를 가장 무서웠던 조선의 黑衣장군으로 기억하기에 이른 것이다.²⁰⁾

그런데 이 비문은 정발은 물론 李庭憲·愛香·龍月 등 정발을 가까이 모시던 이들의 순절도 함께 기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천 출신의 이정

之倭 不以爲虞 俄見舳艫無數 急還入城.

18) 粵在壬辰之亂 釜山僉使鄭公撥 勵氣巡守城 射殲賊無數<…>俄而公中丸絕 城遂陷 公之幕賓副司猛李公庭憲 不去而亦死之 公之妾愛香聞公死 奔哭自剄於屍傍 公之奴龍月 亦奔賊死 其後 倭將言 貴國之將 惟釜山黑衣將軍 最可畏也 蓋公臨戰時 穿黑衣故也.

19) 朴載河, <永嘉臺記>(<『釜鎮諸詠』), 刻公之名而記公之事 立之於此地者 將欲以激邊心而破賊膽也. 이 비문은 오늘날 정공단에 세워져 있는 <忠壯公鄭撥戰亡碑> 碑陰의 내용과 全文이 똑같다.

20) 『忠烈祠志』卷2, 「忠壯公遺事」, <釜山僉使 贈兵曹判書鄭公墓表>, 賊震怖相戒曰 莫近黑衣將軍 蓋公所穿黑色袍也.

현(1559~1592)은 1591년 무과에 급제, 처음엔 助防將의 참모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병이 난 말 때문에 목적이 도착이 늦어 파면당한 후, 귀가하지 않고 정발을 찾아가 참모가 되고 함께 순절하였다. 하지만 그는 정식으로 부산진성에 부임한 것이 아니었기에 전사자의 명부에도 빠져있었다. 손자들이 집안에서 형 庭堅에게 보낸 편지 2통과 형 庭堅이 그의 아들 癸男과 함께 그를 위해 초혼제를 올린 제문 등을 발견하여 비로소 사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관찰사 沈聖希의 보고로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의 贈職을 하사받고, 1760년 동래부사 洪名漢이 송공단에 올려 제사를 지내다가 이후 동래성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鄭公壇에 享祀되었다.²¹⁾ 그의 살신성인에 대해 黃幹은 “하물며 막빈마저 南八보다 늠름했네(矧又賓幕 凜乎南八)”(<永嘉臺記>)라고 하여 그를 南霽雲보다 늠름했다고 칭찬하고 있다. 남제운은 당나라 안록산의 난 때 張巡을 따라 睢陽을 지키다 포로가 되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내 순절한 인물이다.

애향은 정발의 애첩으로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정발을 따라 죽어 1596년 黃愼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당시의 倭將 平調信으로부터 입이 마르도록 찬탄을 받았다. 또 용월은 정발의 여종으로 역시 적과 싸우다 죽었다. 이들이 연약한 여성임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다만 그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공이 길러준 고마움에 감동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²²⁾ 송시열은 이처럼 정발이 애첩과 함께 백성들은 물론 왜적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자 宋 度宗 때 元을 맞아 싸우다 아내 雍氏와 함께 자결한 趙卯發과 명성을 나란히 하고 있다²³⁾고 그를 찬탄하였다.

21) 이상의 내용은 『忠烈祠志』 卷10, 「李公庭憲事蹟」의 내용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22) 宋時烈, <鄭撥墓碣銘> (『國朝人物考』55, 「倭亂時立節人」), 公妾愛香年十八 城陷自剄公尸傍 奴龍月亦赴賊死 人曰 非獨其性也 亦感於所畜也.

충장공은 북쪽에 있으면서 남쪽을 향하게 하고, 사맹은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향하게 배향했다. 애향의 비석은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향하되 작은 담장을 두어 내외를 구별하였고, 용월의 비석은 한 계단을 낮추어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향하되 애향의 남쪽에 있게 하였다. 전쟁에서 죽은 여러 사람들의 비석은 한 계단을 낮추어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향하되 사맹의 남쪽에 있게 했다.

- 張寅植, <鄭公壇紅箭門創建記>²⁴⁾

張寅植이 정공단의 위치를 알리는 홍살문을 만들면서 더불어 정공단의 비석을 재배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일찍부터 정발의 순절을 사모했던 장인식은 1843년 7월에 부산진첨사로 부임하자마자 1766년 부산진첨사 李光國이 宋公壇을 본떠 만든 정공단에 참배했다. 하지만 이때 정발의 비석은 북동쪽, 이사맹의 비석은 북서쪽에 있어 位次가 분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동쪽에 있던 애향, 서쪽에 있던 용월과 전몰자들은 비석이 아닌 나무 위패로 神門의 상판 빈 곳에 두었다가 제사 때 꺼내어 안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인식은 이듬해인 1844년 봄에 이들을 모두 비석으로 바꾼 후 정발이 단의 맨 위에, 그 아래 단의 동쪽에 이사맹, 서쪽에 애향을, 그 아래 단에 용월, 다시 맨 아래 단에 전몰자의 비석을 배치하고 제사를 올렸다.²⁵⁾ 이 때 지어진 축문들이 바로 <李司猛移碑祝>·<烈女碑祝>·<忠

23) 宋時烈, <鄭撥墓碣銘>(『國朝人物考』55, 「倭亂時立節人」), 公不惟國人稱之 醜虜亦稱之 醜虜不惟稱公 亦稱公臣妾 公可與趙池州並列矣.

24) 故只以忠壯公居北向南 以司猛居東向西配享 愛香碑居西向東 隔小牆辨內外 龍月碑降一階 居西向東而在愛香之南 戰亡諸人碑降一階 居東向西而在司猛之南.

25) 옛 비석들은 2009년 5월 ‘同所分祀不可’의 원칙에 따라 옛 제단이 있던 곳에 묻고 그 위에 ‘舊壇埋安感古碑’를 세워두었다. 지금은 같은 壇에 ‘忠壯公鄭撥將軍碑’를 중심으로 왼쪽에 ‘贈左承旨李公庭憲碑’가 나란히 서고, 바로 그 앞 서쪽에 ‘戰亡諸公碑’, 동쪽에 ‘烈女愛香碑’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며, 그 아랫단 서쪽에 ‘忠僕龍月碑’가 세워져 있어 張寅植의 기록과는 다른 배치를 보인다.

奴碑祝>・<戰亡諸人碑祝> 등이다.

<李司猛移碑祝>에서는 뒤에 추증된 직위와 녹봉이 휘황찬란하나 位次에 어긋남이 있어 편치 않을 것이라 壇의 동쪽으로 옮김을, <烈女碑祝>에서는 애향이 남긴 향기가 木石이라도 문제가 없지만 곧은 옥돌에 새기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임을, <忠奴碑祝>에선 노비가 주인을 위해 죽어 충성을 이룬 풍습이 영원히 지속되길, 그리고 <戰亡諸人碑祝>에서는 鄭公壇이 장수와 졸개의 무덤 위에 있어 영원히 마모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²⁶⁾ 각각 담고 있다.

3. 釜山鎭城과 左水營

『부진제영』에서 영가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소는 부산진성과 좌수영이다. 둘레 1,689척, 높이 13척의 위용을 자랑하는 부산진성은 甌山을 중심으로 한 내성과 외성인 자성대로 이루어진 수군첨절제사의 진영으로, 1490년에 축조가 일단락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개축한 뒤 거점으로 삼았으며, 명나라 萬世德의 군대 역시 일시 주둔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성대를 중심으로 성을 쌓고 4대문을 축조하여 부산진성의 본성으로 사용되었다.²⁷⁾

(가) 邑과 鎭이 지닌 객사 가운데 어느 곳이 중요한 곳이 아닐까만 부산에 있어서는 더욱 각별하다. 만약에 통신사 행차를 맞게 되면 곧 국서를 이곳에

26) <李司猛移碑祝>, 爵秩斯煌 位次有違事<…>將移壇東.; <烈女碑祝>, 烈女遺芳 木石何有 刻之貞珉 永圖不朽.; <忠奴碑祝>, 爲主就死 是奴成忠 庸石替木 萬古樹風.; <戰亡諸人碑祝>, 壇在京觀 猿鶴虫沙 改豎圭碑 永世無磨.

27)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慶尙道, 東萊縣, 關防, 釜山浦鎭, 在縣南二十里 有左道水軍僉節制使營<…>石城周一千六百八十九尺高三尺.;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2005, pp.187-192.

봉안해야 하고 사신이 이곳에 머물러야 하며 잔치를 열고 음악을 베풀며 벼슬 아치가 함께 모이는 것 또한 이곳에서 해야 한다.

- 具絺, <釜山客舍重修記>²⁸⁾

(나) 설령 경계해야 할 급한 일이 있다 해도 바다에서는 망루가 가지런하게 보이고 물에서는 성가퀴가 높다랗게 보여 싸우면 싸우게 되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거침없이 유린당할 근심이 있고 어찌 다시 옛날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 李相璜, <釜山城樓記>²⁹⁾

글 (가)는 절제사 具絺가 1678년에 창건된 뒤 2번이나 수리한 뒤에도 퇴락해버린 부산객사의 重修가 외교사절단을 위해서도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軍校·아전과 함께 36칸의 객사에 동쪽으로 작은 문을 만들고 사방으로 기와 담장을 두른 후, 觀德亭과 永嘉臺마저 수리를 끝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글 (나)는 일찍이 巡撫使를 따라 부산에 왔을 때 성가퀴가 훼손된 것을 보고 분개하고 탄식하던 李相璜이 부산진첨사로 부임하여 1년간의 개축공사를 끝낸 뒤 부산성루 개축공사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 『부진제영』에서 부산진성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西城金壘關重修記>·<鎮南門重建記>·<樓臺城堞廡宇重修記> 등이 있다. <西城金壘關重修記>와 <樓臺城堞廡宇重修記>는 모두 1817년 부산진첨사로 부임한 安光贊의 작품으로, “성을 쌓고 누대를 세우는 것이 옛 사람의 뜻으로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³⁰⁾ 강조한다. 전자는 전임 李朋錫이 채 마

28) 邑鎮之有客舍 孰非所重 而在釜尤別焉 若當信行 則國書奉安於此 使臣留館於此 賜宴設樂 賓僚齊會 亦在於此.

29) 設有警急 於水樓櫓整齊 於陸雉堞崢嶸 戰則戰不戰則守 寧有席捲蹂躪之患 又復如昔日者哉.

30) 安光贊, <樓臺城堞廡宇重修記> (『釜鎮諸詠』), 所以築斯城建斯樓 古人之意 豈徒

치지 못하고 죽은 부산진성의 서쪽문인 金壘關의 중건과 영가대 지붕의 수리를 마무리 지은 시말을, 후자는 금루관·영가대의 중수와 함께 동문인 鎭東門과 閉門樓인 濟南樓를 비롯하여 客舍·鎭南門·息波亭·觀德亭 등을 수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鎭南門重建記>는 절제사 張寅植이 부산진성의 남문인 鎭南門이 무너져 내린 것을 증언한 시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부산진성과 관련된 작품은 대부분 부산진성의 건축과 修築에 관련된 것이지만, 동래부사 權以鎭이 지은 <釜山子城碑銘>과 동래부사 朴綺壽가 지은 <皇朝經理大中丞萬公碑閣重修記>와 같은 예외도 있다. 1709년 부산진에 오른 권이진은 풀밭에 누워 있는 부서진 비석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정유재란 때 明으로부터 와서 왜적을 제거함으로써 임금의 근심과 팔도 神人의 분노를 덜어준 御使中丞經理朝鮮 萬世德의 공을 기린 비석이었다. 겨우 백년 만에 훼손된 것을 본 권이진은 “당시의 옛 사적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보전될 수 있게”³¹⁾ 구리로 부서진 것을 잇고 비문을 목판에 음각하여 보완한 뒤 비각을 세운 시말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1878년 동래부사 朴綺壽는 이 비각과 비문을 중수하면서 麻貴·董一元·劉紵·陳璘 등 明의 대장군들이 권이진 덕분에 큰 공훈이 우뚝 섰다고 찬탄하는 칠언율시를 남기기까지 한다.³²⁾

동래읍성과 금정산성이 동래부의 육상 방어시설이라면, 경상도 동래부

然哉.

31) 權以鎭, <釜山子城碑銘>(『釜鎭諸詠』), 欲令當時舊蹟 永保來裔.

32) 朴綺壽, <皇朝經理大中丞萬公碑閣重修記>(『釜鎭諸詠』), 東征赫赫四將軍 節制由公建大勳. 경상좌수영에서 펴낸 『萊營誌』, 『壇廟』, <萬公壇>조에 의하면 권이진 이후 1750년에 동래부사 黃景源이 神武壇을 세워 제사를 지내려다 시행되지 못하고 동래부사 강필 리가 萬公壇을 세웠으며, 1845년 부산진첨사 장인식이 단 위에 萬公碑를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에는 부산진성과 다대진성과 같은 수상 방어시설을 거느린 主鎮인 경상좌수영이 있었다. 『부진제영』에는 경상좌수영과 관련된 제영으로 <左水營賓館重修記> · <次寧波堂壁上三絶韻> · <明侯堂記> · <題明侯堂> · <謹步明侯亭韻> · <和呈水閣明侯亭韻> · <同舟下大洋登覽海雲臺歸後以兩節寄題姜膺煥稿> · <東門樓重建上樑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소는 『書經』의 ‘과녁을 세워 밝히다(侯以明之)’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明侯堂이다.

觀射兼觀稼 활쏘기 보는 것을 겸하여 농사도 살피니
 新亭特地高 새 정자 특히 지세가 높는데
 小廳作古樹 작은 창은 고목에 기대고
 短枕長壕 짧은 기둥은 긴 참호를 내려보네
 未出農謳樂 쟁기가 나오니 농요가 즐겁고
 豐斟士禮豪 넉넉히 술 따르니 선비의 예가 호방하매
 偷閑成日陟 여가를 틈타 날마다 오르게 되었는데
 齋巖久忘勞 벽돌로 지었으니 오래토록 수고로움을 잊겠네

- 安光贊, <題明侯堂>

安光贊이 明侯堂에 오른 감회를 그리고 있다. 명후당은 1829년에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안광찬이 軍校의 활쏘기 연습을 위해 射臺를 마련하면서 좌수영의 남쪽 누각을 크게 수선하여 건립한 것이다. 누각의 남쪽에 백여경의 벼가 있어 ‘大有樓’라는 편액을, 동쪽에는 해운대와 통하므로 ‘雲涵樓’라는 편액을 달았다는 <明侯堂記>의 기록처럼³³⁾, 명후당은 활쏘기 구경은 물론 농사도 살필 수 있는 최고의 명소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바

33) 安光贊, <明侯堂記>(『釜鎮諸詠』), 樓南有百餘頃穠稌 扁曰大有樓 東與海雲臺通 扁曰雲涵.

다가 평안하니 장군이 늙어가고 / 풍년이 드니 수비하는 군사가 호탕하네
(海晏將軍老 年豐戌卒豪)”(洪義祖, <謹步明侯亭韻>), “과녁을 세우는
농민은 즐거워하고 / 활을 쏘는 장사 호탕하기도 하네(樹幟農民樂 彈弓壯
士豪)”(李發源, <和呈水閣明侯亭韻>)와 같은 차운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좌수영의 객사인 寧波堂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도 있다. 당시 부산 지역
에는 부산진성의 拱辰館, 동래부의 蓬萊館, 초량왜관의 大東館 등 객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좌수영의 영과당이 명성이 높았다. 1841년에 수군
절도사로 부임하여 퇴락한 객사를 중수한 李圭徹은 그 경관을 “산을 등지
고 바다로 뻗치어 경치가 시원하고 처마와 지붕이 날렵하게 솟아 있어 그
웅장하고 화려함이 한 번 살펴봄에 있어 으뜸이었다.”³⁴⁾고 적고 있다.

將軍旗鼓海船多 장군의 깃발과 북을 매단 바닷배 많기도 한데
約束魚龍不起波 魚龍과 약속한 듯 파도도 일지 않고
咫尺蠻隣無一事 가까이 오랑캐 이웃조차 사건 하나 없으니
天高風靜簫師歌 하늘 높고 바람 고요한데 뱃사공 노랫소리만 들리네
- 金魯鎭, <同舟下大洋登覽海雲臺歸後以兩節寄題姜膺煥稿>

김노진이 해운대를 관광한 뒤 영과당에 올라 1793년에 경사좌수사 姜膺
煥이 지은 시에 부친 것이다. 나라의 남쪽 끝에 있어 왜적을 코앞에 두고
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 시기는 양국이 通信使 교류를 통해 선
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사공의 노랫소리만 울려 퍼지는 태평
스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평성대라 그저 즐길 만하다

34) 李圭徹, <左水營賓館重修記>(『釜鎭諸詠』), 背山拱海 景致蕭灑 簫宇突瓦 其壯麗
甲於一省.

말하지 마소 / 군대의 방책은 오직 힘든 때를 잊지 않는데 있나니(莫道昇平徒可樂 軍謀惟在不忘勞)”(李膺緒, <次寧波堂壁上三絕韻>)라 하여, 태평성세 속에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는 잊지 말자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다.

이밖에 <東門樓重建上樑文>과 <侍御樓題詠>도 있다. 전자는 1845년에 절제사 張寅植이 좌수영의 동문인 朝陽樓를 증건한 절도사 李元夏의 요청에 의해 지은 상량문이다. 나라의 重門이 되어 干城이 될 인재를 임명하고 군대의 장수로 만들어 임란의 수치를 씻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³⁵⁾ 후자는 부사 吳翰源, 막빈 金學基, 절제사 張寅植이 각각 임란 이후에 세워진 국내 최대규모의 산성인³⁶⁾ 금정산성의 侍御樓에 올라가 읊은 칠언율시 3수이다. 장인식이 “통나무 같은 봉우리 깎아 서서 봉화를 전하고 / 금샘에선 칼 씻는 마음이 울려오네(桶峯削立傳烽信 金井鳴來洗劍心)”라 읊은 것처럼, 대체로 변방의 요새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尹興信과 尹公壇

『부진제영』에 포함된 『多大鎭題詠』의 중심내용은 多大鎭전투를 이끈 다대진첨사 윤홍신과 그와 함께 싸우다 순절한 이를 모신 윤공단이다. 다대진전투와 윤홍신에 대한 기록은 부산진전투와 동래성전투에서 각각 순절한 정발·송상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략하다.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으로는 鎭川縣監 윤홍신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헌부

35) 張寅植, <東門樓重建上樑文>(『釜鎭諸詠』), 爲國家之重門 任干城才 作師旅之元帥 洗龍蛇. 『萊營誌』에는 같은 글이 <朝陽樓上樑文>으로 되어 있고, “절도사 이원하가 지었다(節度使李元夏述)”고 적고 있다.

36)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편,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 p.226.

에서 파직을 청하고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록만이³⁷⁾ 있을 뿐이다.

이는 다대진 전투에 대한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다. 곧 실록에는 “왜적이 군대를 나누어 서생포와 다대포를 함락시켰는데 다대포첨사 윤흥신이 대항하여 싸우다 죽으니, 바닷가의 郡縣과 鎭堡들은 모두 소문을 듣고 도망하여 흩어졌다.”고 적고 있다. 『懲毖錄』도 비슷한 내용인데 ‘서생포’가 아니라 ‘서평포’이고, “대항하여 싸우다 죽었다”를 “힘써 싸우다 죽임을 당했다.”로 바꾸고 있을 뿐이다.³⁸⁾

(가) 공은 贊成公 任의 아들이다. 형제가 여섯으로 그 중 셋이 을사사화에 관련되었다. 공이 다대진에 부임할 때 庶弟인 興悌가 따라왔다. 적들이 공에게 다가와 시퍼런 칼날이 어지럽게 떨어질 때 흥제가 공을 껴안고 함께 죽었는데, 꼭 쥐고 있어서 풀지 못하고 드디어 같은 판에 넣어 묻었으니, 얼마나 기이하고 장렬한 일인가! (나) 그로부터 백여 년 후에 나의 先大夫께서 동래부사가 되고 잇달아 통신사로 갔는지라 공의 일을 매우 자세히 알았는데, 그가 송공과 정공의 사당에 빠져 있음을 가엾게 여겨 조정에 아뢰었더니 오래 지난 후에 일이 마침내 시행되었다.

- 趙鎭寬, <尹公壇碑文>³⁹⁾

조진관이 지은 글을 편의상 나눈 것으로 (가)는 윤흥신의 가족관계와 두

37) 『宣祖實錄』 卷14, 선조13년(1580), 10월 21일, 府啓 鎭川縣監尹興信 不解文字 請罷 依啓. 이하 실록을 인용할 때는 ‘『宣祖』14, 13(1580), 10/21’로 약칭하기로 한다.

38) 『宣修』26, 25(1592), 4/14, 倭分兵陷西生浦多大浦 多大浦僉使尹興信拒戰死之 沿海郡縣鎭堡 望風奔潰.; 柳成龍, 『懲毖錄』 卷1, 倭分兵陷西平浦多大浦 多大浦僉使尹興信力戰被殺.

39) 公贊成任之子 兄弟六人 其三人者 與於乙巳之禍 其赴鎭也 有庶弟興悌從焉 及賊逼公 白刃亂下 興悌抱公同死 握因不釋 遂同棺而窆 何其奇且烈也 後百有年 我先大夫守萊府 繼泛東槎 知公事甚熟 愍其關於宋鄭之祠白于朝 久之事竟施. 오늘날 윤공단에 세워진 비석에는 <僉使尹公興信殉節碑>로 새겨져 있다.

형제의 장렬한 최후를 기리고 있다. 이 글은 윤홍신과 다대진전투가 덜 알려진 이유가 다대진이 主鎭 경상좌수영과 巨鎭 부산진에 예속된 작은 진영으로 군사적 비중이 높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곧 윤홍신의 아버지 윤임은 인종의 외삼촌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1545년 을사사화때 역모를 꾀한 죄로 자신과 아들 3명이 함께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조진관은 윤임의 아들이 6명이라 적었지만, 1763년에 조엄과 함께 통신사 서기로 일본을 다녀온 成大中은 5명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어리다는 이유로 죽임을 면하였다고⁴⁰⁾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살아남은 2명의 아들이 바로 興信과 興悌인 셈이다. 興信은 어미와 함께 노비로 생활하다 1577년 아버지의 伸冤과 함께 관작이 회복되면서⁴¹⁾ 진천현감의 자리를 얻었고, 가족사의 아픔을 지닌 남다른 형제에는 다대진 부임은 물론 戰場에서의 죽음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글 (나)는 윤홍신의 사적이 알려지고 송공단과 정공단에 享祀된 것이 아버지 조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1757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조엄은 윤홍신이 충렬사 享祀에서 빠진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1761년에 경상도관찰사가 되자 도내에서 孝烈과 節義가 두드러진 자의 포상을 조정에 청할 때 윤홍신을 포함시켜 그의 사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그 결과 윤홍신에게 旌閭와 함께 병조참판 追贈이 이루어졌다. 물론 조엄 이전에 具思孟도 윤홍신의 사적을 기록하긴 했다. 곧 그가 지은 『亂

40) 成大中, 『青城集』 卷1, 「詩」, <宋多大浦李僉使海文>, 興信父任興信兄弟五人 三死乙巳之禍 二則以稚免. 『明宗』2, 1(1545), 9/11에 윤임은 城山에서 斬刑을, 아들 중 興禮와 서자 金伊은 노랑에서, 興仁은 여산에서 絞刑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追斬尹任于城山<…>絞<…>尹任子興禮金伊于路梁…絞尹任子興仁于礪山).

41) 『宣修』11, 10(1577), 11/1, 命削乙巳之勳 復尹任贊成瑠桂林君等官爵.

後弔亡錄』의 「死節」조에 조헌·고경명·송상현 등 14명의 애도시와 함께 윤홍신을 애도하는 시 <多大浦僉使尹興信>을 각주와 함께 수록한 것이다.⁴²⁾ 하지만 조엄이 『亂後弔亡錄』을 접한 것은 조정에 보고한 이후이기 때문에⁴³⁾ 윤홍신을 조정에 공론화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조엄의 공으로 돌려도 무방할 듯하다.

윤홍신 선양사업은 이후에도 이어져 조엄과 함께 통신사 군관으로 참여한 李海文은 다대첨사에 부임한 뒤 조엄이 기록한 윤홍신의 사적을 벽에 게시하고 비석을 세우려 하였다. 또 1764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姜必履는 금정산 범어사의 『國朝戰亡人施食冊子』에서 윤홍신의 이름이 송상현과 정발의 아래에 크게 써어 있는 것을 보게 된 후, “사람의 사모하는 뜻이 중들에 미치지 못하여 범어사 施食僧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부끄러워한다.⁴⁴⁾ 그리고 2년 뒤인 1766년에 송상현을 모신 송공단에 윤홍신을 모셔와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신의 숙원을 행동으로 옮긴다.

公名未向貞珉垂 공의 이름 아직도 곧은 옥돌에 전해지지 않아
埋沒孤忠衆所悲 외로운 충혼이 매몰됨을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臨亂豈眞無義士 난을 당하매 어찌 참으로 義士가 없었으랴
殺身能不負男兒 몸을 바쳐 능히 남아의 기개 저버리지 않았네
古城波撼幽靈泣 옛 성이 파도에 흔들리니 유령이 울고
折戟沙沈往蹟疑 부러진 창 모래에 묻혀 있어 옛 자취인가 의심하는데
靖遠樓墟星月白 정원루 옛 터엔 별과 달이 밝아

42) 具思孟, 『八谷雜稿』, 亂後弔亡錄, 死節, <多大浦僉使尹興信>, 奔亡列郡已全空
分死危言獨效忠 麾下若教終未散 孤城猶足策奇功.

43) 趙曠, <多大浦僉使尹公戰亡事蹟敘>(『忠烈祠志』 卷3, 「尹公遺事」), 近日 偶閱具
八谷思孟弔亡錄 其死節條 特書多大浦僉使尹興信.

44) 姜必履, <尹公死節記>(『忠烈祠志』 卷3, 「尹公遺事」), 是豈士林向慕之意 不及於
縉徒之崇奉而然耶…此豈不爲梵魚施食僧之所笑乎.

舊壇脩食便新祠 옛 제단에 제사지내니 문득 새로운 사당이 되었네

- 姜必履, <詠尹將軍>

『다대진제영』에 수록된 강필리의 시로, 꿈에도 그리던 윤홍신의 송공단 향사가 이루어진데 대한 감회가 잘 드러난다. 그리고 1772년 1월 14일에는 조엄이 어전에서 윤홍신을 동래부 충렬사에 享祀할 수 있도록 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2월 12일에 追享告由祭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⁴⁵⁾

이처럼 구사맹·조엄·이해문·강필리·조진관으로 이어지던 윤홍신 선양사업은 조엄의 손자 趙寅永과 동래부사 洪鍾應에 의해 마무리를 짓게 된다. 곧 홍종응이 동래부사에 임명되었을 때 조인영이 와서 조부 조엄이 윤홍신을 충렬사에 모셨고 아버 조진관이 그 일을 기록했지만 옥돌에는 그 일이 빠져 있다는 말로 贈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홍종응은 “조인영이 先代의 뜻을 잇기 위해 쓰러진 사적의 수리와 빠진 것을 집고자 했지만, 충절을 널리 알리는 것은 수령된 신하의 책임”이라며 흔쾌히 사적을 보충하여 비석을 세웠다.⁴⁶⁾ 그 결과물이 오늘날 윤공단에 세워진 <僉使尹公興信殉節碑>이다. 그 왼쪽에는 함께 싸우다 죽은 다대진 백성들을 기린 <殉亂士民碑>(1834)가, 오른쪽에는 尹興悌를 기린 <義士尹興悌碑>가 세워져 있다.

『다대진제영』의 <詠尹將軍>에는 “꽃다운 이름 묻혔다가 늦게서야 알

45) 『英祖』118, 48(1772), 1/14, 備堂趙曦曰<…>獨尹興信以境內官長之死節者 不得與焉 適當壬辰年之重回 若命并享於忠烈祠 實爲樹風聲之道 下詢大臣處之宜矣 大臣皆以爲宜 許并享 上從之. 추향고유제는 『忠烈祠志』 卷3, 『尹公遺事』, <同季二月十二日追享告由祭祝>·<翌日禮成祭祝>을 참조.

46) 洪鍾應, <尹公壇碑文>(『釜鎭諸詠』), 修陞典補軼事 盖雲石所以克濟先志 闡忠表節 亦遂臣責.

려지니 / 아득히 당시를 생각하니 일이 더욱 슬프네(芳名埋沒晩而垂 遙憶當年事更悲)”(<詠尹將軍>, 尹秀烈), “만대의 꽃다운 이름 역사에 실려 전하니 / 장부의 한 번 죽음 어찌 슬프다 말하리(萬代芳名竹帛垂 丈夫一死豈云悲)”(<詠尹將軍>, 閔宗赫) 등 한결같이 그의 사적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IV. 마무리

이상으로 『釜鎭諸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진제영』은 크게 부산진을 제재로 한 『부진제영』, 다대진을 제재로 한 『다대진제영』, 금정산의 시어루를 제재로 한 『시어루제영』 등으로 나누어진다. 시문의 형식도 記文, 碑銘, 上樑文, 祝文, 題詠 등 다양화되 산문은 ‘記’가, 시는 칠언율시가 많았다. 편집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부산 지역 출신보다 다른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대부분이며, 혈연관계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앞뒤로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부진제영』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크게 권반과 영가대, 정발과 정공단, 부산진성과 좌수영, 윤홍신과 윤공단 등으로 나타났다. 권반은 영가대를 세운 공적으로 찬탄의 대상이 되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영가대는 외교공간이자 명승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정발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충절의 표상으로 묘사되었고, 이들의 비석 건립 경위와 정공단의 배치가 주로 다루어졌다. 부산진성과 관련된 작품은 주로 성곽·문·누각·비석 등을, 좌수영은 객사와 누각을 중건한 시말을 다루었다. 그리고 윤홍신과 윤공단은 매몰된 윤홍신의

사적을 세상에 드러내어 선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처럼 『부진제영』은 표제와 달리 부산진은 물론 경상좌수영과 다대포진, 그리고 금정산성과 관련된 시문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게다가 임란의 치욕에 대한 설욕의 의지와 함께 선열의 충절이 깃든 국방요충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조선후기의 부산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 『부진제영』이 정작 부산에는 없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본으로 남아 전하고 있는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기존 향토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촉발함과 동시에 나아가 부산지역을 배경으로 창작된 고전문학작품의 발굴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釜鎭諸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萊營誌』, 日本 天理大學 今西文庫本.
경섬, 『海槎錄』.
유성룡, 『懲毖錄』.
조경남, 『亂中雜錄』.

2. 논문 및 단행본

- 『東萊區誌』, 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부경
역사연구소, 2010, pp.181-186.
『부산금석문』,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부산경남역사연구회 편,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1999.
『부산, 역사 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2005.
서울대학교도서관 편, 『國朝人物考』,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p.11.
심봉근, 「釜山浦와釜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문물연구』25,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2014.
엄경흠, 『한시와 함께 하는 시간여행』, 전망, 1997.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배경에 대하여」, 『석당논총』50, 동아대학교 석당
학술원, 2011.
충렬사 안락서원 편, 『忠烈祠志』, 1978.
한태문, 「통신사 문학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 『항도부산』 21집, 부산광역시사편
찬위원회, 2005.

Abstract

A Study of *Bujinjeyeong*

Han, Tai-Moon

This paper examined *Bujinjeyeong*, which collected various literary works background of Busan in the latter period of Josun Dynasty and edited them, focusing on looked into characters and spaces that were reflected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book *Bujinjeyeong*. To sum up, the outcomes of this writing are as follows:

First, formally the composition of *Bujinjeyeong* is largely divided into 'Buji njeyeong', themed Busanjin, 'Dadaejinjeyeong', themed Dadaejin, and 'Sieoruje yeong', themed Sieoru of Geumjeongsan Mountain. *Bujinjeyeong* lacks editing system and in it most works were by writers from other districts rather than writers from Busan district. And the works which represented blood relationship were placed before and behind and it is characterized that there are many Chireonyulsi in poets.

Second, largely characters and spaces that often appears in *Bujinjeyeong* are Gwon Ban and Yeonggadae, Jeong Bal and Busanjin castle and Jwa Suyeong, Yun Heungsin and Yun Gongdan, and so forth. Gwon Ban became an objection of admiration because he built Yeonggadae. The role of Yeonggadae which was a strategic location as famous scenic place as well as a space of diplomacy was empathized. Jeong Bal who fought against Japanese invaders and died for country with his followers was described as the symbol of loyalty. And the reason for building Jeong Bal and his followers' tombstone and Jeongongdan were mostly dealt with. The works related to Busanjin castle dealt with a castle · gate · tower · tombstone, and so on And Jwa Suyong dealt with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rebuilding a hotel and a tower. And Yun Heungsin and Yun Gongdan were focused on revealing and enhancing Yun Heungsin's historical site in the world.

Key Word : *Bujinjeyeong*, *Yeonggadae*, Jeong Bal, Jwa Suyeong, Yun Heungsin

한태문

소속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관교
수연구동 411호

전화번호 : (051) 510-2009 / 010-4854-2009

전자우편 : hantm@pusan.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

